

대연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문영희, 이영희)는 4월 4일 '정다운 이웃과 함께하는 우통산 작은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사물놀이, 기체조와 실버댄스, 통기타, 색소폰 등 주민참여와 경성대 UCDC댄스동아리 재능기부로 열려 주민화합의 장이 됐다.



○...와와사브 대연점(대표 방정현)에서는 4월 15일 관내 어르신 100명을 모시고 '어르신 사랑나눔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와와사브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봄맞이를 위해 따뜻한 사브사브와 떡을 대접하며 올해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대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최정선, 김옥희)는 4월12일 대연수목전시원에서 관내 어르신 20명을 모시고 숲문화체험 행복나눔을 실시했다. 문화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노년기 고립감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 사업은 대연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의 회의 참석수당 모금으로 지원되며 올 10월까지 총 9회로 진행된다.



○...주민센터는 4월 18일 민·관·경이 함께하는 "명품 안전마을 지킴이"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생활안전협의회, 대연지구대,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참여해 대하로 주변 상가와 원룸밀집지역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월 26일 관내 부모 30명을 대상으로 '마음문이 활짝! 부모-자녀 대화법' 강화를 실시했다. 이 강좌는 아이마을 알아주는 부모, 부모 마음 알아주는 아이라는 주제로 최영미(부경대학교 부경아동센터 부모교육 팀장) 강사의 재능기부로 진행했다.

대연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주영식)는 3월 25일 영남물류와 함께하는 저소득층 행복나눔기사를 추진했다. 8,800천원 상당의 생필품 3,441개를 기탁받아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200세대 및 관내 경로당 8곳, 복지관련기관 3곳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대연5동



○...제일집(대표 정순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대양) 주체 『신나는 올동과 다함께 식사하는 어르신 행복교실』 참여자에게 밀반찬 4가지를 담아 행복도시락을 제공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사업으로 올해 2월부터 총9회에 걸쳐 행복교실 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됐다.

○...청년회(회장 백운용)는 4월 22일 남구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짜장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저소득 및 홀로어르신 1,000여명을 초대하여 짜장면과 떡, 과일, 요구르트를 대접하며 이웃간의 정을 나누었다.

대연6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수균)는 4월 16일 관내 저소득 2세대에 사랑의 계좌 후원금을 전달했다. 사랑의 계좌는 주민자치위원, 각급단체회원, 주민의 후원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새마을문고(회장 정점순)는 4월 17일 관내 아이원어린이집 원아 12명과 함께 씬지도서관 체험활동을 운영했다. 이 체험활동은 문고회원의 봉사를 통해 동화 구연과 독서 활동으로 진행되며,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독서에 관심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기회가 되었다.

용호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박두춘)는 4월 6일 '클린! 용호1동' 새벽맞이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단체장협의회 등 각급단체원 40명이 참여해 관내 이면도로 및 청소 취약 지역에 투기된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화단에 초화를 식재하였다. 또한 쓰레기 배출 요령이 인쇄된 자체 제작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들의 환경인식 개선에도 앞장섰다.

○...4월 11일 용호1·2·3·4동-용호지구대-남구청 신건강복지센터 기관 간 업무협약을 용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복지 상담 시 가정방문 동행,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 등 동과 지구대, 정신건강센터가 긴밀한 업무 협조가 가능해져,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용호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딤돌봉사단(회장 권경옥)은 4월 1일 홀로 어르신 5세대를 방문하여 만수무강 생신상을 차려드렸다. 올 1월부터는 생신상에 용호시장 돈고래수육에서 수육을 후원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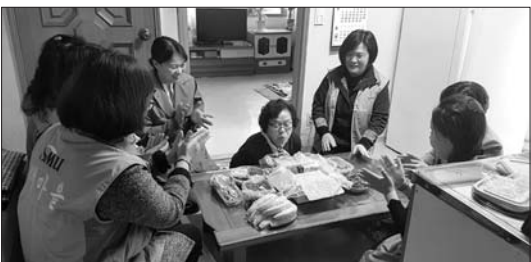
용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김경혜, 권재득)는 오륙도 5,600원 희망나눔 특화사업으로 '오륙도 56°C 사랑 찾아가는 생신상'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2일에도 어르신 6세대를 방문하여 생신상을 차려드리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용호2동 자연보호협의회(회장 허광호)는 4월 20일 용호동 장자산 일대에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 20여명이 참여하여 큰고개집터 주변에 사과와 석류나무 40그루를 심고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용호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성자)는 4월 10일 홀로 어르신 5세대를 방문하여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이웃간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부녀회는 2월에 1번씩 홀로어르신 생신상을 차려드릴 계획이다.



○...바르게살기위원회(위원장 이동선)는 4월 14일 이기대공원 일원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주민센터는 3월 29일 프로그램 및 동아리회원 정기 발표회 '봄이 왔나봄'을 개최했다. 이 발표회는 분기별로 꾸준히 개최되어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동섭)는 4월 11일 혼남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혼남어르신 건강밥상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3년째 이어져오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로 취사 환경이 열악한 남자 어르신에게 밀반찬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용호4동



○...용호동 소재 식당 골목집(대표 김순연)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어르신 150여명을 모시고 '사랑의 나눔밥상' 행사를 열었다. 식당 아들(이영재)과 그가 소속된 원원회 회원 6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용당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동민)는 올해도 1개월 1개동 5세대이상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용당동 115복지사각지대 가정방문' 사업을 실시한다. 4월 19일에도 10세대를 방문하여 성품을 전달하고 복지상담을 실시하여 맞춤형 서비스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감만1동



○...행정복지센터는 4월 15일 남부소방서 현장대응단과 합동으로 비상소화장치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비상소화장치는 주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소화장치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번 훈련은 감만1동 뿐 아니라 인근 동 주민들도 참여해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및 가상화재 진압훈련으로 진행됐다.

○...무민공 최영 장군 사당보존회(위원장 장성준)는 4월 20일 감만동 무민사에서 최영장군의 넋을 기리는 행사를 봉행했다. 무민사는 고려시대 왜구를 격퇴한 무민공 최영장군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넋을 기리기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추정되며, 감만동 주민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무민사보존회를 결성하고 무민사 제향을 복원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김은주, 김충기)에서는 4월 23일 저소득 노인가구에 안전한 가스사용과 화재예방을 위해 가스타이머를 설치했다. 이번 사업은 부산도시가스 용호서비스센터(센터장 김진수)에서 20세대를 설치 지원하여 총 50세대에 가스타이머를 설치했다.

○...행정복지센터는 4월 23일 관내 주택화재현장을 찾아 화재 폐기물 처리를 도왔다. 이날은 비가 오는 가운데 주민 20여 명이 참여해 폐기전, 폐가재 등으로 등 1톤 트럭 2대분의 폐기물을 수거해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감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조용판)는 어르신들의 기분좋은 사진전 '웃음꽃 활짝'을 4월 8일부터 19일까지 남구청 로비에서 개최했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인 웃음교실 '웃음꽃 활짝'은 매우 화요일 운영되며 홀로어르신 40여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진전에는 어르신들의 웃는 모습 사진 27점이 전시되어 보는 이들을 기분 좋게 했다.

○...주민센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용판)와 감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동봉)과 협력하여 올해도 어르신 안부·건강점검사업 '감만2동 요·정이 되어주세요' 사업을 추진한다. '요·정'은 '요쿠르트'로 전하는 '정'의 줄임말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자를 찾아 재원을 마련하고 감만종합사회복지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거동불편어르신을 찾아가 요쿠르트를 전하며 말벗이 되어준다. 감만2동은 주민이 주민을 돕는 민관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센터는 복지통장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 이야기를 듣고 소통하는 '동네방네 구석구석' 사업을 추진한다. '발로 뛰는 복지통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14명의 통장이 주2회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주민의 속사정을 듣고 도움 방법을 찾는다.

우암동에 부는 신바람 '하이 파이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축 따뜻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우암동에 봄바람 같이 상쾌한 'Hi-Five(하이파이브)' 바람이 불고 있다. '따뜻한 ấm(warm)동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들의 신명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요즘 그들은 수시로 하이파이브를 한다고 한다. 왜 그러는 것일까.

우암동은 2018년 3월 주민주도 마을계획실행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부산시에서 우암동의 복지 현황, 건강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기반 사업 등을 살펴보고 사업추진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다.

주민주도 마을계획실행지원사업의 목적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계획수립과 실천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자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현황을 잘 파악하고 서로 협력하여 마을이 가진 장점과 가치를 극대화 하고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 주민들의 동참과 참여를 이끌어 갈 팀이 필요했고 우암동은 우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주축으로 팀을 만들었다. 팀명은 "Hi-Five"이다. 여기서 Five는 Field, Foot, Find, Feel, Full의 5개 단어로 마을(Field)에서 발(Foot)로 뛰며 문제를 찾고(Find) 느끼고(Feel) 욕구를 채운다(Full)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Hi-Five 팀은 2018년 12월 부산시와 부산복지개발원 등 개기관과 협약을 맺고 인근에 있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전문가 매칭 및 주민 욕구를 파악한 뒤 마을의제를 위원들이 직접 논의하고 합의를 통



해 의사결정부터 실행단계까지 주민 주도의 동특성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28일(화)에는 '따뜻한 ấm(warm)동 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주도 마을계획실행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지고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더 힘찬 활동을 다짐하였다.

Hi-Five 팀은 회의시작과 종료 때 Hi~! 인사를 건네면서 서로 손바닥 마주치며 하이파이브를 한다. 회의진행도 기존의 형식을 허물고 의제된 사안을 자율토론과 수평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협의체 위원들도 서서히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회의 참석하면 소식전달 방식이었는데 마을문제 개선을 위해 직접 참여하니 좋았고 새로운 발상으로 뭔가 더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한 봉사정신이 무엇인지 배워갑니다" "지역이동센터 아이들과 하이파이브로 인사합니다"등 다양한 변화들을 이야기 하는 Hi-Five 팀. 봄바람처럼 따뜻한 "Hi-Five"를 외치며 기분 좋은 마을변화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마을리더 조용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용호2동 오륙도 지킴이'

용호2동에 최근 의미 있는 마을공동체 하나가 만들어졌다. 이름은 '용호2동 오륙도 지킴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고자 주민들이 결성했다. '용호2동 오륙도 지킴이(회장 박고형)'는 현재 1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을공동체가 구성된 용호동 521번지 일원은 과거 부산시 정책이주지였으며 4호 연립이라는 동일한 형태의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곳이다. 65세 이상 인구와 독거노인의 비율이 높아 그에 따른 노인 돌봄 문제와 인구감소 발생이 우려되는 마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은 매우 높아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용호2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마을 주민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여기에 마을공동체 오륙도 지킴이가 힘을 보태고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정기모임을 가지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임을 열어 마을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열정으로 3월에는 2019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행복 용호동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4월 17일 '어렵지 않아요, 실천하는 마을공동체'라는 주제로 열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교육에 마을공동체 회원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작지만 큰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마을 주민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웃 간 관계망 구성이 필요하며 용호2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외부적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의 의식 변화도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평소 마을 문제가 무엇인지, 마을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주민들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이다.

오륙도 지킴이는 오륙도 안심 야쿠르트 지원사업, 오륙도 사랑 집수리 사업, 4호연립 특수주소 표지판 정비사업 등에도 꾸준히 참여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뜻을 모아 「행복 용호동 만들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용호2동 그 선봉장에선 '용호2동 오륙도지킴이' 마을공동체 회원 여러분의 맹활약이 기대된다.

오륙도 지킴이 박고형

우암동



○...우암장학회(회장 최현철)는 지난 3월30일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6명에게 장학금 180만원을 전달하며, 학업에 매진하여 훌륭한 인재로 자라도록 격려했다.



○...(주)세방(의사장 김수득)에서는 4월 4일 200만원 상당 컵반 18종 세트를 기부했다. 컵반은 취약계층 64세대에 「행복한 한끼식사」 별미식 맞춤형 물품으로 제공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월 8일 행정복지센터 옥상의 '사랑나눔미(美) 텃밭'에서 수확한 쪽파를

정감다리봉사단과 함께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새마을부녀회(회장 정순애)는 4월 10일 홀로 어르신 2세대를 방문하여 청소봉사를 실시,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제거하고 새 이불도 제공했다. 새마을부녀회의 1단체1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미리미리안전지킴이단(단장 강정식)과 참미소노들봉사단(회장 박성진)은 4월 14일 홀로어르신 이사와 청소봉사를 실시했다. 올해 3번째 이사봉사로 마을의 이주 시급 세대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휴일도 마다않고 도움의 손길을 모았다.

○...주민자치회는 4월 26일 '우암동 생활환경개선단'을 발대했다. 이는 주민자치회와 각급단체원, 직원으로 구성된 자율봉사조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암동에서는 "양달마을 도시재생지원 사회공헌활동"이 한창이다. 이 사업은 부산환경공단(의사장 배광호), 도시재생지원센터(원장 변강훈), 광역주거복지센터 3개 기관이 4년째 참여해 온 네트워크 협력사업이다. 지난 4월 22일에도 부산환경공단 직원을 포함한 50여명의 봉사자들은 주거취약계층 8세대의 집수리와 골목길 외벽도색작업으로 양달마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우암산악회(회장 한성수)는 4월 21일 철쭉이 만개한 우암동 도시숲에서 철쭉축제를 열었다. 주민 250여명이 함께 한 축제에는 작은 음악회와 보물찾기, 부침개 등의 먹거리가 제공되어 주민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었다.